AI가 쓴 판례 인용, 무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4단계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 첨부 자료(사건·의뢰인 정보는 모두 지움)

문제 — AI 법률 서면 서비스가 만든 초안에는 판례가 빽빽하게 인용돼 있었다. 그런데 법원에 내는 서면에서 판례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 주장까지 의심받는다. 판결 전문 상당수는 유료 서비스에만 있고, 하급심 판결은 공식 DB에 없는 경우가 많다.

목표 — 유료 계정 없이, 변호사 시간을 쓰지 않고, 인용된 판례를 전부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판례마다 밟는 순서 (앞 단계에서 확인되면 거기서 멈춤)

1단계 법제처 공식 API

인증키를 받고 사무실 IP를 등록한 뒤, 판례 조회 도구를 내 PC에 설치해 Claude Code에 연결했다. 사건번호로 판례가 실제로 있는지, 전문이 공개돼 있는지 바로 확인한다.

전문이 나오면 → 전문으로 판시 확인 후 끝

2단계 빅케이스

비회원도 판결 '이유'의 첫 문단, 즉 핵심 법리를 볼 수 있다.

핵심 법리가 인용 취지와 맞는지 1차 확인

3단계 케이스노트

전문은 유료지만 "다른 판결에서 인용된 문구" 발췌는 무료다. 후속 법원 2~3곳이 같은 문구를 인용하면 판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여러 법원이 같은 문구 인용 → 판시 문구 확인

4단계 후속 대법원 판결로 함께 인용

그 문구를 다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법제처에서 찾는다. 공식 전문이 공개된 판결을 서면에 함께 인용한다.

공식 전문이 있는 판결로 근거 보강

끝까지 확인되지 않은 판례는 서면에서 빼거나, 변호사에게 '미확인'으로 표시해 넘긴다. AI(Claude Code)에게는 "맞다, 틀리다"를 묻지 않고 원문 문단을 그대로 가져오게 했다. 원문과 초안 문장을 나란히 놓고, 맞는지는 아래 기준으로 사람이 판단한다. 최종 판단과 서면 확정은 변호사가 했다.

사람이 정한 기준

인용이 맞는지 볼 때

- 대법원에서 **파기된 판결**은 아닌가
-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전제로 쓴 문장**을 끌어온 것은 아닌가
- **사안 구조**가 같은가
- 인용 문구의 **원래 출처 문서**가 무엇인가

책임 있게 쓰기 위해

- 검색어에는 **사건번호·법리 키워드만** 넣는다. 의뢰인 이름·사건 내용은 넣지 않는다
- 조회 도구는 **정부 API에 직접** 연결한다. 제3자 중계 서버는 쓰지 않는다
- 전문을 못 읽은 판례는 "**전문 미열람**, 후속 판결의 인용으로 확인"이라고 변호사 메모에 적는다
- 검증 전 AI 초안은 **그대로 넘기지 않는다**. 확인을 통과한 논거만 옮긴다

결과

11건	7건	4건	0건
최종 서면에 인용한 판례	1단계(법제처 전문)로 확인	유료 서비스에만 있던 판례를 2~4단계로 무료 확인	변호사에게 부탁한 유료 조회

초안 검토를 시작한 다음 날 오후에 확인을 마쳤다. 4단계에서 찾은 후속 대법원 판결은 공식 전문이 공개돼 있어 서면의 논거 하나를 더 단단히 받쳐 줬다.

AI 초안에서 걸러낸 것

유형	건수	처리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은 ~라고 판시"로 인용	**1건(2회)**	삭제
인용한 취지와 판시 내용이 다른 판례	**1건**	삭제
공식 DB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건번호	**8건**	인용에서 빼고 변호사에게 '미확인'으로 표시
의뢰인 쪽이 보낸 공문 문구를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처럼 기재	**1건**	출처 문서 대조 후 정정
같은 '실무례'가 초안마다 다른 사건번호로 등장	—	근거에서 제외

'공식 DB에서 확인되지 않음'은 판례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급심 판결은 실제로 있어도 공식 DB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없는 판례'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다뤘다.

따라 하기용 검증표 (예시 행은 익명 처리)

판례	초안이 주장하는 내용	멈춘 단계	확인 범위	사용 여부
판례 A	(초안 문장 그대로)	1단계	전문	사용
판례 B	(초안 문장 그대로)	3단계 → 4단계	인용 발췌 + 후속 대법원 판결 전문	후속 판결과 함께 사용
판례 C	(초안 문장 그대로)	1단계	전문 — 파기된 원심으로 확인	삭제
판례 D	(초안 문장 그대로)	4단계까지 확인 안 됨	—	빼고 '미확인' 표시

법률이 아니어도 같은 구조

AI가 출처를 달아 준 보고서라면 논문·통계·기사 인용도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다. **원문 → 요약 → 다른 곳의 인용 → 원문이 공개된 후속 자료.** 개발 도구 없이 브라우저만으로도 밟을 수 있고(국가법령정보센터 → 빅케이스 → 케이스노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AI 연결은 반복 조회를 빠르게 해 줄 뿐이다.

사용 도구: Claude Code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korean-law-mcp) · Firecrawl. 빅케이스·케이스노트는 무료로 공개된 부분만 이용.